

# 코로나19 극복 경제 살리기 총력

### 남원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특례금융 및 특례보증지원 등 추진

남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특례금융 및 특례보증지원, 특별금융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금유예, 피해통합 신고센터 운영 등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1억2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소상공인에게 1인 최고 3천만원까지 연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전

북신용보증재단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특별금융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청뿐 아니라 유관기관, 사회단체 직원들의 주 1회 지역 내 식당을 이용하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 및 용역도 조기발주하고 관내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하고 선금급을 계약금의 70%까지 확대 지급하고,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취득세, 소득세 주민세 등의 최대 1년 납부 연기 및 징수유예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손소독제 279개, 마스크 600개를 배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피해대책과 관련해 기업체는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남원시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환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라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코로나 19 최일선 방역현장 점검

### 황숙주 군수, 군 보건의료원 방문 소속 공무원 격려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 26일 코로나19 방역활동 최일선인 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소속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황 군수는 군 청사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소속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황 군수는 군 청사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차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근무하며, 본인의 업무외에도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고생중인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보건의료원을 방문한 황 군수는 의료원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근무상황과 현장의 예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관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공무원들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군 전체 방역활동에 마비할 수 있는 상황이나 공무원 스스로가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한 의료원내 간부급 공무원들을 참석시켜 고령자,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및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해 개별방문 등 관심과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 19 의심환자나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 26일 코로나19 방역활동 최일선인 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소속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증상자 발생시 가장 먼저 접촉될 가능성이 높은 보건의료원과 관내 의료기관들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그 어느때보다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24시간 근무체제로 임하고 있으며, 내방객 전원에게 대해서도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내 터미널, 버스정류장, 신호등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술관, 수영장, 승마장 등 다중이용시설등에 대해서도 임시운영정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순창군 관내 유증상자 9명에 대해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가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대중교통 외 전 차량 및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및 소독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남원시, 대중교통 외 전 차량 방역 실시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역장비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외 전 차량 및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및 소독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월 5일 관내 버스·택시업계에 마스크, 소독제 등 감염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한데 이어, 남원여객, 남원·인월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남원역, 시내 권 승강장(35개소)은 물론, 모든 시내 버스(43대)·택시(355대) 차량 내·외

부를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춘향골체육공원 앞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중교통, 학교, 학원, 어린이집, 전세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김재현 교통과장은 "26일부터는 대중교통 차량 외 자가용 등 전 차량에 대해 방역소독을 받을 수 있다"며,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미세먼지 저감 명품숲 조성

### 총 10억원 투입, 편백·백합나무 등 30만 그루 나무 식재

임실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봄철 나무심기 사업을 서둘러 추진한다.

군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위해 불철 경제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명품 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림사업 대상은 목재생산 및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경제림조성 80ha와 산불, 병해충 피해지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립

35ha,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등에 미세먼지저감조립 30ha,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심는 지역특화림조성 10ha 등 155ha의 임야 등이다.

군은 총 1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편백나무와 백합나무, 상수리, 낙엽송 등 3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다.

또한 임야에 유실수, 특·약용수 등 식재를 지원하는 특용수 조림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산주들의 임업 소득향상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소방서, 코로나19 원천 차단 노력

남원소방서는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원천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은 출근 시 청사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미열이 발견될 시 조퇴 권고 및 마스크 착용, 자가 격리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

다. 또한 민원담당 부서는 전 직원 마스크를 쓰고, 민원실 입구에 민원인 마스크 쓰기 배너 및 소독젤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전 직원 출퇴근도 개인별 이동을 추천하고 카풀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로 권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역량 강화

임실군이 코로나19 비상대응 시스템을 풀가동 중인 가운데 보건 의료인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은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전라북도감염병진원단 이주형 교수를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사환자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지침 ▲역학조사서 작성방법 ▲전환상담 응대 및 선별진료소 근무 요령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재 군 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사 6명, 간호사 10명으로 주·야간 2교대로 선별진료소 운영과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2시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관광사업체 발굴 청년PD 3월 18일까지 이메일 접수

순창군 관내 활동중인 관광두레 프로듀서(PD)를 지원하고 순창의 신규 관광사업체를 발굴할 청년PD를 뽑는다. 청년PD는 현재 활동중인 관광두레PD를 옆에서 지원하며, 새롭게 지역에 뿌리내릴 신규 관광사업체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광두레PD는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하여 관광사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창업, 성장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관광두레PD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사업단이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해 '관광두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관내 사업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청년PD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18일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나 순창군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touridre2020@kcti.re.kr)로 신청, 접수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관광두레사업단(02-2669-847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